



# 개혁주의 구약 성경 해석과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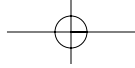
이사야 60:1~9 읽기를 통하여

## 들어가면서

개혁주의 전통은 오직 성경이라는 모토 가운데 서 있다.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경은 정확무오하며 하나님의 계시 그 자체이다. 하지만 성경의 기록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인간 저자에 의하여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용이하고 간결하게 주어져 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읽는 성경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배경’ 과, ‘문법적-문예적 맥락’, 그리고 ‘신학적인 내용’ 을 살펴서 해석하고 독자의 삶에 적용을 하여야 한다.<sup>1)</sup>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사야 60:1-9을 개혁주의 구약성경 읽기의 측면에서 해석하고 적용하고자 한다. 선택된 본문은 많은 비평학자들에 의하여 선지자 이

1) 역사적-문법적-신학적 해석 방법은 전통적으로 개혁주의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지향하여온 방법이다. 이에 대한 기초적인 확인은 L. Berkhof의 성경해석학(1965)에서 볼 수 있다. 또한 최근의 일반 해석학적 이론들의 발전으로 인하여 그들의 성경 해석에 대한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에 대한 이해가 주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Tremper Longman III(2002)은 성경해석의 문법적인 측면에서 문학적인 측면을 함께 살필 필요성을 알려준다. 이런 필요성은 김지찬의 *요단강에서 바벨론 물가까지: 구약 역사의 문예적-신학적 서론* (2006)에서 그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사야가 아닌 익명의 저자(들)의 글이라고 주장되지만,<sup>2)</sup>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가 직접 보았던 하나님의 계시(יְהוָה 이상, vision)이다. 게다가 그 계시 속에서 주어진 장차 이루어질 -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여 맞이할 - 새 예루살렘에 대한 내용의 첫 단락이다.<sup>3)</sup> 마지막으로 본문은 구원과 복에 관한 종말론적 그리고 신학적 이해를 독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논문은 개혁주의 성경읽기 관점에서 이사야서 60:1-9의 역사적 배경과 문법-문예적 이해 그리고 신학적 내용을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고 난 후 우리는 본문에 대한 결론적인 적용을 시도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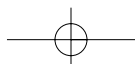
## 1. 본문의 역사적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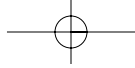
이사야 60:1-9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본문에 대한 역사적 이해를 선행하여야 한다. 이는 누가 저자이며 그리고 그 기록의 역사적 배경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에서 출발을 한다.<sup>4)</sup>

### 1.1 이사야의 저작권

이사야 60장 1-9은 주전 8세기 예루살렘에 거하였던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 
- 2) 비평학자들은 이사야 56-66장을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것이 아닌 40-55장을 기록한 어떤 한 선지자의 제자(들)이라고 보고 "제 3 이사야"라고 명명을 한다. 이에 대하여 지지하며 "제 3 이사야"라는 이름으로 주장하는 최근의 한국 경우는 서명수(2003)에게서 볼 수 있다.
  - 3) 이사야 60:1-9는 하나의 의미 단락인가 하는 문제는 간단한 것은 아니다. 학자에 따라서 이에 대한 이해는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1-3절을 시적인 소개 부분으로 그리고 4-9절을 세계의 부와 재물과 함께 돌아오는 시온의 아들과 딸들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Childs(496)는 1-9절을 하나의 의미 단락을 묶어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기뻐하도록 도전받는 시온"에 대한 내용으로 하나로 보고자 한다.
  - 4) 본문의 역사를 이해하는 것은 저자의 의도와 저자의 기록의 역사적 배경을 확인하는 작업이 된다. 과거 오랜 기간 동안 성경 저자와 그의 배경에 대한 신뢰를 두지 않았다. 그러나 성경 자체는 하나님에 의하여 선택된 인간저자와 그가 다루는 역사의 내용 가운데 주어진 의미를 가지고 있다(벤후저, 420-431). 그래서 성경해석자는 성경저자의 의도를 따라서 본문자료의 고유한 의미를 찾아야 한다(Graeme Goldsworthy, 2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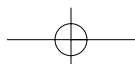
터 직접 받은 계시의 말씀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이사야서의 표제와 이사야의 소명기사에서 이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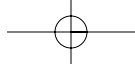
본문의 저자가 주전 8세기 예루살렘의 이사야라는 사실은 저자를 나타내는 표제에서 분명하여진다. 일반적으로 표제는 구약 예언서에서 누가 저자인지 알려주는 분명한 표식이다. 예레미야 아모스 요나 학개 스가랴 등은 그 분명한 예들이다. 이사야서에서는 1장 1절 “유다왕 웃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에서 이사야 성경 전체가 주전 8세기 이사야 선지자가 본 이상의 책으로 분명히 뜻을 박고 있다. 이 외에는 이사야서 전체에서 다른 저자를 언급하는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다.<sup>5)</sup> 이는 주전 8세기 중반에서 7세기 초반에 활동을 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의 저자임을 알려 준다.

그렇다면 이사야 선지자가 미래인 주전 5세기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사야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장차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이상을 본다(사 6장).<sup>6)</sup> 이사야는 웃시야 왕의 죽는 해에 성전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보았다. 첫째로, 이사야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뵈는 체험을 한다(사6:1-5). 이 체험에서 그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깨닫게 된다. 둘째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에 있을 것을 알게 된다(사 6:9-12). 마지막으로,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남은 자”들로 인하여 새롭게 회복될 것을 알게 된다(사 6:13). 이런 그의 이상체험은 이사야로

5)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라는 이름은 이사야서에서 1:1을 포함해서 총 16번 나타난다: 1:1; 2:1; 7:3; 13:1; 20:2, 3; 37:2, 5, 6, 21; 38:1, 4, 21; 39:3, 5, 8.

6) 이사야서에서 저자를 알 수 있는 소명기사는 6장에서만 주어진다. 많은 역사비평가들은 40:6-8을 다른 선지자의 소명 기사로 이해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비평학자들 사이에서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은 최만수(2005: 35-37)을 참조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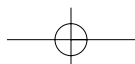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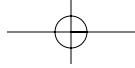
하여금 시대를 뛰어 넘는 후대의 이스라엘에 관한 일들을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1.2 역사적 배경

이사야 60:1-6은 바벨론 포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이스라엘의 구원의 날에 대하여 들려준다. 이사야는 기원전 701년 앗수르 왕 산헤립의 침입으로 예루살렘 성만 남아있는 비참한 역사적 상황을 경험한다(왕하 18:23 참조). 그런 가운데 그는 이스라엘의 불경건과 배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적 은혜’로 구원을 받으며, 종국적으로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임을 선포한다. 실재적으로 이스라엘은 기원전 586년에 폐망하고, 그리고 바벨론에서 포로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그러나 기원전 538년 바사의 고레스 왕의 칙령(대하 36:22-23; 스1:1-4; 6:3-5)으로 5만에 이르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역사적 미래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선포되었다.

한편 이사야 60:1-9절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현실은 어렵지만 반대로 미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시대일 것임을 보여준다. 이스라엘은 기원전 536년에 총독 스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에 예루살렘은 황폐하였고 성전은 무너져 있었다. 그런 여건 속에서 이스라엘은 고레스 왕이 내어준 성전기물들과 각종 예물들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였으나(스3장) 주변의 시기(스 4장)와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들(학 1장)로 공사는 14년 동안 중단되었다. 그러나 521년 다리오왕 때에 학개와 스가랴를 통한 하나님의 독려하심으로 주전 516년에 성전이 완공될 수 있었다(스5:6-6:18).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의 재건이 이루어졌음에





도 여전히 이스라엘의 삶은 변하지 않고 있었다. 이런 상황을 미리 바라보고 있는 선지자 이사야는 이스라엘에게 임하실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며, 그들의 미래를 하나님으로 인하여 바꾸어 놓길 기대하고 있음을 본문을 통해 보게 된다.

요약하면, 본문은 주전 8세기에 예루살렘에서 살았던 선지자 이사야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다. 그리고 본문은 이사야가 살아가는 시대의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장차 바벨론의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거주하고 있을 미래의 이스라엘에게 전하는 말씀이다. 그 미래의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성전(좀 더 은밀히 말한다면 성벽)을 세워 나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다.

## 2. 본문의 문법적-문예적 특징: 장르와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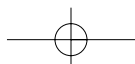
이사야 60:1-9는 그 자체에 각인된 문법적-문예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sup>7)</sup> 일반적으로 (문법적-)문예적 특징은 주어진 본문의 장르와 구성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본문이 현재가 아닌 미래를 위한 예언적 말씀인 것과 동시에 그 내용이 장차 다가올 청중인 미래의 이스라엘에게 읽힐 수 있도록 되어 있음 보여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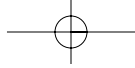
### 2.1 장르<sup>8)</sup>

기본적인 문학양식으로서 이사야 60:1-9는 예언적 본문이다. 이미 역사적 배경에서 살펴본 것처럼 본문은 장차 회복될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서 행할 일에

7) 성경 본문에 대한 문법(문예)적 특징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비평학자들처럼 문헌이론에 함몰되어서 성경본문의 의미를 “미학적 의미”로 환원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성경본문 속에 있는 문학적 기능들을 통하여서 본문의 역사적-신학적-교훈적 의미를 찾고자 하는 것이다. 이런 본문 분석의 실례를 위해서는 룡벤(2002, 109-214)을 참조하라. 그리고 본문의 문법적 특성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는 본문 분석의 실례를 위해서 이학재(2008, 34-64)를 참조하라.

8) 장르는 성경본문의 의미를 찾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벤후저(2003, 553)는 장르 이해가 저자 중심의 성경 신학을 회복하는데 있어서 “커다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믿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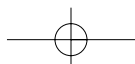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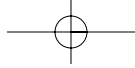


대한 예언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명령의 임함에서 알 수 있다. 1절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에서 보면 마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것처럼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다고 표현을 하고 있다. 이는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진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내용이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이었다. 이는 동일하게 4절에서도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는 하나님의 명령적 계시가 주어진 것에서도 나타난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발언 “여호와의 말씀이다” 혹은 예언 전달자의 형식으로 사용되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형식구가 사용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이름과 위임 속에서 본문이 말하여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사야는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것으로 선포하고 있다.

더욱이 본문은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것을 촉구하는 형식구를 사용함으로써 이 계시의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공개적으로 선포되었음과 그의 청중들의 관심을 일으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첫째 본문은 들음의 초청으로 시작을 하고 있다. 둘째로 본문은 수신자가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한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명령은 여성복수형을 사용 한다. 이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지칭을 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 청중들이 이스라엘이 들어야할 것에 대한 예고 등의 요소가 들어있다. 열방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며,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녀들이 돌아오고, 그리고 성전을 지을 재물들이 주어질 것을 알게 된다.

더욱이 본문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파송이 있음을 알게 한다. 본문에서 사용된 명령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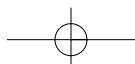
면서 그들을 파송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 위엄을 나타내는 명령으로 되어 있다. 1절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4절의 “네 눈을 들라” “사방을 보라”는 모두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의 명령형이 앞서 나온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에서 이는 확연히 알 수 있다. 게다가 이곳에는 예언적 명령의 수신자인 목적어(수신자)와 전달내용이 뒤따라서 주어지는 형식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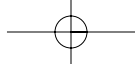
## 2.2 본문의 구성

본문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읽히고 또한 그 자체적인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위치와 구조적 특징을 이해하여야 한다.

### 2.2.1 위치 - 전체적인

이사야 60:1-6은 회복될 이스라엘이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의 권고가 주어진다. 본문은 그 주어진 위치와 그 자체의 구조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본문은 이사야서 전체에서 보면 이사야서의 마지막인 3번째 부분에 속한다. 이사야서는 역사적인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크게 3부분으로 나뉜다. 첫째 부분인 1-39장까지에서 이사야서는 유다 왕 웃시야부터 시작하여 히스기야까지 곧 기원전 8세기를 묘사한다. 그 시기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과 세상의 권력을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나며, 하나님의 징계/심판이 선언된다. 둘째 부분인 40-55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 포로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약속 곧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에 대한 선포가 주어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분인 56-66장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된다. 그러므로 본문은 이사야의 환상 중에서 예루살렘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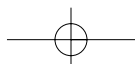


귀환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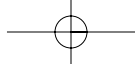
이사야 56-66장에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은 이제 모든 나라와 왕들을 향한 빛의 사명을 부여받게 된다. 이는 사60-62장을 중심으로 아래와 같은 A-A')B-B')C-C')D의 계단식으로 전개 된다(목회와신학 편집부, 2008: 363).

- A. 이스라엘의 복에 동참하는 이방인들 56:1-8
- B. 윤리적 의의 필요성 (56:9-59:15a)
- C. 신적인 전사(59:15b-21)
- D. 세상의 빛으로서 예루살렘(60-62)
- C' 신적인 전사(63:1-6)
- B' 윤리적 의의 필요성(63:7-64:12)
- A' 새 이스라엘(새 하늘과 새 땅)을 통한 이방인들의 구원(65-66장)

A-A'에서 변화된 이방인들의 모습 곧 이스라엘의 복에 동참하여 구원받는 이방인들이 그려진다. 그리고 B-B'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이 윤리적인 문제임을 알 수 있다. 같은 민족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고리대금과 같은 문제가 일어날 것임을 알게 되고,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의를 회복해야함을 알게 된다. 그러나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 이에 C-C'에서 이스라엘에 신적인 전사인 여호와와의 인도하심이 주어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인이심을 선포하면 이제 D에서 세상의 빛으로서 일어나는 이스라엘/예루살렘을 보게 될 것이다. 이때 이스라엘의 새로운 미래/사명을 여는 첫 부분이 주어진 본문 60:1-9로 시작을 한다.







### 2.2.2 구조: 세부적인

본문 60:1-9가 가지는 구조는 3중 구조이며 이는 또한 세부적으로는 12중 평행(대구) 구조 즉 ABC[D]-A'B'C'[D]-C"DA"B"로 되어 있는 것처럼 여겨진다. 마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에게 주어질 영광스러운 일들을 단계적으로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의 성전의 회복/재건을 이루실 일을 강조하시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한다.

A 일어나 빛을 발하라(1절)

B 오직 여호와께서 네(시온) 위에 임하실 것이며(2절)

C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아오리라(3절)

**D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7d)**

A' 네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4절)

B'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라(5절a):

C' 바다의 부가 네게로 돌아오며 이방나라들의 재물이 네게로  
옴이라 (5b-6)

**D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7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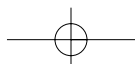
C" 계달의 양과 느바웃의 숫양이 다 네게로 모일 것이다(7ab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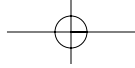
**D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7d)**

A" 날아오는 자가 누구인가? (8-9abc)

B"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9d)

ABC[D]의 계단식 구조를 하나로 연결하는 것은 “여호와와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는 구절이 전체를 하나로 연결하는 고리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그 영광의 빛을 발하면서 주어질 일들을 하나하나씩 단계별로 제시한다. 즉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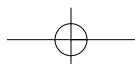
스라엘이 일어나 빛을 발하여야 한다(A). 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위에 임하시며(B) 그리고 그 결과 나라와 왕들이 예루살렘으로 나아온다(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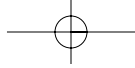
한편 A'B'C[D]는 (무리/물질 등이) “네게로(예루살렘으로) 온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하나의 묶음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눈을 들어 사방을 보”아야 한다. 그 결과는 단계적으로 제시된다.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의 아들과 딸들과 함께 오는 무리들이 있다(A). 그런 일을 보는 이스라엘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고(B), 마지막으로 바다의 부와 이방의 재물이 구체적으로 낙타와 금과 유황이 예루살렘에 주어진다(C).

마지막으로 A"B"C(D)는 본문의 결론적인 단락으로 “아름답게 하리라”(7절) “영화롭게 하다”(9절)로 같은 의미의 형상화를 한다. 예루살렘으로 “날아오는 자들”이 있으며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나아오고 있다(A).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이다(B). 그 결과는 그들이 양과 숫양을 가지고 여호와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다(C).

게다가 ABC와 A'B'C' 그리고 A"B"C"는 평행적 대구형식으로 주어져서 A=A'=A", B=B'=B", C=C'=C"의 구조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빛이 예루살렘에 임하고 그에 대한 결과로서 세상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오는 모습을 각각의 그룹이 단계적으로 설명하여 보여준다. 즉 결국 본문은 예루살렘/시온이 바벨론 포로 후에 회복되었을 때에 나라들과 왕들이 몰려오며 하나님께 예배/찬송을 드리는 장소가 될 것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각 소 단락들은 모두 D를 공유하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결론을 가





진다. 즉 ABC>D, A'B'C>D, A"B"C">D의 형식으로 나타난다. 이는 본문 이사야 60:1-9는 주어진 역사적 배경 속에서 더욱 분명해지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즉 회복된 예루살렘에 성전은 이미 완성 되어 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격려하시는 이유가 D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시는 것임을 선포하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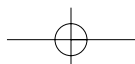
요약을 하면, 본문에는 문법-문예적 내용을 읽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들이 주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본문 자체가 미래의 청중을 위한 예언형식으로 기록이 되었고, 또한 그 구성 역시 전체적인 맥락에서 회복될 이스라엘의 역할에 그리고 세부적인 전개에서도 새로운 이스라엘의 모습을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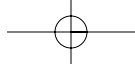
### 3. 본문의 내용: 신학적 읽기

이사야 60:1-9의 내용 전개는 이스라엘이라는 신앙공동체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의 내용이라 할 것이다. 이는 청중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 체계나 혹은 공동체의 기대감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본문 자체가 전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시의 신학적인 내용을 청중들이 알아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앞에서 제시한 내적(세부적) 구조에 따라서 해석을 하고자 한다.

#### 3.1 A-A'-A" 일어나 빛을 발하라(1, 4, 8-9abc)

1절의 “일어나 빛을 발하라”에서 명령을 받는 주체는 2인칭 여성단수로 표현되어서 이는 시온 곧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루살렘을 인격화한 것은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임을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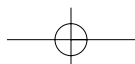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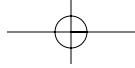
여주기 위함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시온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명령함으로써 인하여 이미 하나님의 빛이 그들에게 와 있음을 알려준다. 그렇다면 시온/예루살렘에 이미 와있는 이 빛은 무엇을 뜻하는가? 이는 1절 후반 절에서 답하고 있다. 즉 이유를 나타내는 ‘이느’ (‘יִשְׁׁ’)을 사용하여서 빛을 발하여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자신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준다.

이느(왜냐하면)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여기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것은 “네 빛” 곧 ‘여호와의 영광’이다. 그리고 빛/영광이 이스라엘에게 있음을 표현하기 위하여 “이르렀고” 와 “임하였음이니라”라는 완료형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시온/예루살렘의 빛 곧 여호와의 영광은 이미 시온에게 임하여 있음을 알리는 것이다.

그러면 시온이 “일어나 빛을 드러내어 발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1절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명령은 4절에서 “네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로 바뀌어 있다. 즉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것’은 ‘눈을 들어 사면을 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자신의 주위를 무엇인가를 기대하며 바라보아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그들에게 주어진 그러면서도 감추어진 어떤 일을 기대하는 것은, 힘들고 버거운 예루살렘의 삶속에서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이다. 바벨론 포로가 됨으로 인해 흩어졌던 형제와 자매 그리고 아들과 딸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이 가장 큰 사건이다. 이를 4b에서는 이스라엘의 아들이 그리고 딸들이 안전하게 예루살렘으로 이방의 무리들에 호위를 받으면서 오는 것을 표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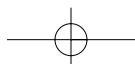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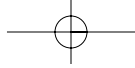
8-9abc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아들들과 딸들이 어떻게 올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이 주어진다. 8절에서 이스라엘의 아들들과 딸들을 데리고 오는 자(들)의 모습이 마치 집으로 돌아오는 자의 기쁨으로 가득한 것을 알려준다.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같이” 기쁨과 환희에 찬 즐거운 모습이다. 그리고 9a에서 그들은 다시스 사람으로서 배를 이용하여 올라온다는 것을 말한다. 이는 가장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한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은 여호와와의 예배에 참여하기 위함이었음을 알 수 있다.

### 3.2 B-B'-B" 여호와가 임하신다(2, 5a, 9d)

왜 모든 사람이 예루살렘/시온으로 오는 걸까? 이는 시온을 제외한 모든 곳이 공포와 악의 존재인 어둠 속에 있기 때문이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2a). 이 어둠은 1절의 빛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여기서 “캄캄함”이란 두꺼운 구름을 표현한 것이다. 마치 어떠한 빛도 통과 시키지 않은 모습을 그리고 있는 영상적인 단어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이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은 두꺼운 구름을 뚫고 직접 시온/예루살렘에 임재하신다.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라(2b).” 하나님의 영광(הַכְּבוֹד; הַקְּבוֹד)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영광이란 단어는 부요함으로도 설명이 가능하다.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한 이스라엘에게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부요함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시온/예루살렘이 세상의 피난처가 된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시온에게로의 임재하심은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의미가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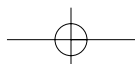
어지는가? 5a에서 잘 묘사된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소망을 가지기에 어려운 여건에서 고군분투하는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생기게 된 것이다. “그 때에 네가 보고 희색을 발하며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제 그들은 자신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빛)으로 인하여 소망을 가지게 되어 얼굴에 기쁨을 되찾게 된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전율하는 것과 같은 강한 자신감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자신들의 살아가야 할 땅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집인 것을 알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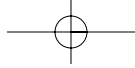
이는 분명하게 9d에서 제시되고 있다.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거하는 집 곧 시온이 되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스스로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다. 그들에게는 그만한 능력이 없다. 페르시아가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에 그런 일이 가능하겠는가? 이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예루살렘을 다시금 자신이 거하는 집으로 삼으실 수 있음을 증거한다. 이는 분명 일인칭(“내가”)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이었음을 알 수 있다.

### 3.3 C-C'-C" 모든 나라와 왕들이 시온의 빛으로 나아온다(3, 5b-6, 7abc)

본문의 명령 즉 “예루살렘이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의 실천적 결과를 자세히 묘사하고 있다. 이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 19:5-6절의 시내산 언약이 성취가 되어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됨을 선포한다.

3절에서 나라들과 왕들은 이스라엘/시온에게 임한 하나님의 빛과 광명으로 나아올 것이다. 여기서 빛과 광명은 거부할 수 없는 강렬한 것이다. 이미 사 2:2-5절에서 이사야가 바라본 것처럼, 모든 나라와 왕들이 시온/예루살렘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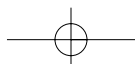


로 밀물처럼 밀려올 것이다. 시온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온 땅의 통치의 중심이 되는 곳이다. 그러므로 시온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온에 있음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빛과 광명이 온 땅에까지 퍼지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빛과 광명을 본 자들이 어떻게 시온/예루살렘으로 나아오는가? 그리고 와서는 무엇을 할 것인가?

5b-6절에서 ‘부와 재물’이 예루살렘/시온으로 올라오는 사람들에게 함께 주어지는 것임을 알린다. 5b “이는 바다의 부가 네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이 네게로 옴이라”에서 처럼 해로와 육로를 통하여 막대한 부가 예루살렘으로 집중되는 상황을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바다의 부”는 무엇인가? 이는 이사야 13-23장에서 두로와 시돈에서 처럼 해양무역을 통하여 부를 축적한 재물을 뜻한다(목회와신학 편집부, 2008:366). 그리고 “이방나라의 재물”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는 바벨론과 같은 열방의 나라의 재물들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시온/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쌓아온 재물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6절은 모든 나라와 왕들이 어떻게 시온/예루살렘으로 올 것인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그들이 왔는지를 보여준다. 예루살렘에 가득한 “허다한 낙타”는 3절의 나라들과 왕들이 예루살렘으로 올 때 사용한 수단이다. 그리고 낙타를 타고 온 족속 중에서 미디안과 에바(미디안의 아들 족속)는 트랜스 요단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한 민족들이다. 그리고 스바는 아라비아 남부에 거주한 구스의 아들의 족속(창 3:10; 대상 1:9)으로, 또는 애굽과 에티오피아와 함께 아프리카 지역의 나라로 묘사되기도 하는 족속으로 오늘날의 예멘 사람들이다. 이들은 세상 끝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 때에 “금과 유향”을 가져와서 하나님에게 예배/제사를 드리려는 것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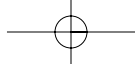
다. 게다가 이들 지역은 땅 끝이라고 할 수 있다. 땅 끝의 나라와 백성조차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의 중심인 예루살렘-이스라엘을 향하여 올라오게 되는 것이다. 기억해야 할 것은, 이전에는 나라들과 왕들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것은 전쟁을 의미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에게 제사/예배를 드리려고 오는 순례의 길을 의미한다.

### 3.4 [D]-[D]-D 내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7d)

그렇다면 본문의 결론은 무엇인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굳게 서고, 민족들과 나라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와서 여호와께 예배하는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분명히 하여 준다. 여호와께서 성전을 성전답게 하신다는 것이다. 이미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 의하여 성전이 지어진 상태에서 그 성전이 하나님의 집으로서 다시금 분명히 선포되고 그 가운데 주께서 거하시는 것이다. 역대하 7:14에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지라.”고 하셨다. 이제 땅의 어지러운 모습이 해결되고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성으로 다시금 선다. 이는 종국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할 것이다.

요약하면, 본문은 자체에 가지고 있는 계시적-신학적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하나님의 백성의 빛을 발하는 일의 중요성이 잘 제시되고 있다.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명령이 단순히 명령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순종에 대한 약속 즉 장차 포로에서 회복될 이스라엘에게 기쁨과 즐거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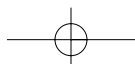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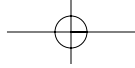
을 회복하실 것임을 알리고 계다가 그런 일의 결과가 시내 산에서 주어진 언약의 회복 즉 다시금 제사장 나라가 되어 여호와와의 예배를 집행하게 될 것임을 알게 한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는 일이시며 하나님의 전 곧 하나님 자신을 위한 일임을 깨닫게 하신다.

## 결론과 적용

결론적으로 개혁주의 구약해석의 적용은 (구약)성경이 “지금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계시로 주어지는 것임을 강조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사야 60:1-9에서는 분명 하나님이 그 인간저자로서 직접 이사야 선지자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자신을 계시한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본문은 장차 회복될 미래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여야 할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사야 60:1-9는 믿음의 공동체들에게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함에 초점이 있다. 이를 세 가지로 살펴보자.

첫째로 믿음의 공동체는 자신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드러내어야 한다. 힘들어 보이는 세상 속에서 살아갈 것임을 알려준다. 모든 것이 어두움인 것처럼 보여도 이미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며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야 한다. 분명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이(창 15장), 시내 산에서 세우신 그 언약이(출 19장), 이제 예수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이에 이사야 60:1-9에서 주어진 내용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모습을 새 예루살렘/새 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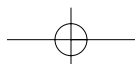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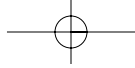


라엘로서 우리에게 제시된다.

둘째로,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깨달아야 한다. 세상적인 권세와 물질보다도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구원의 하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하심을 알아야 한다. 이미 교회의 머리되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예배와 기도를 들으시고 계신다. 이는 가슴이 떨리고 전율하는 놀라운 소식이다.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에 대해, 이미 이사야는 7장 14절에서 “임마누엘”이라고 이름하시고, 9장 6절에서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고 선포한다. 이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또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하심을 기억해야 한다.

셋째로, 성도의 삶과 역할은 온 땅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예배에 인도하며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야 하는 사명이 있다. 마치 이스라엘/예루살렘이 빛을 발하므로 모든 나라와 왕들이 하나님에게 나아올 수 있었던 것처럼 말이다. 이사야는 그가 본 계시에 대한 선포를 하였다. 그 계시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내용이었다. 새 하늘과 새 땅의 역사가 시작되는 곳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날에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뭇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사 66:18). 이제 그와 같은 일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주어진 그리고 새롭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예배가 있는 오늘(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나타날 것이다.





**참고문헌**

---

Berkhof, L. 윤종호, 송종섭 역. 「성경해석학」. 김포: 개혁주의 신행협회, 1965.  
 Longman, Tremper III. 유은식 역. 「문학적 성경해석」. 현대해석학시리즈 3. 서울: 솔로몬, 2002.  
 Vanhoozer, Kevin J. 김영재 역. 「이 텍스트에 의미가 있는가?」 서울: IVP, 2003.

김지찬. 「요단강에서 바벨론 물가까지: 구약 역사서의 문예적-신학적 서론」.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6.  
 목회와 신학 편집부 편. 이사야2: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두란노How주석 24. 서울: 두란노아카데미, 2008.  
 서명수. 「제3이사야: 사 56-66 주석적 이해와 설교적 적용」. 서울: 한들, 2003.  
 안명준. “갈변의 신학적 해석학.” in 「신학적 해석학」. 서울: 이컴 비즈넷, 2005: 212-239.  
 이학재. 「신지자들의 메시지」. 서울: 기쁜날, 2008.  
 최만수. 「이사야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서울: 그리스, 2005.

Calvin, John. *Commentary on the Book of the Prophet Isaiah*. Trans. William Pringle. Vol. 4.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Childs, Brevard S. *Isaiah*. The Old Testament Library. Louisville; London: Leiden: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1.

Goldsworthy, Graeme. *Gospel-Centered Hermeneutics: Foundations and Principles of Evangelical Biblical Interpretation*. Downers Grove: IVP Academic, 2006.

Harman, Allan M. *Isaiah: A Covenant to be Kept for the Sake to the Church*. Scotland: Christian Focus Publishing, 2005.

Motyer, J. Alec. *The Prophecy of Isaiah: An Introduction & Commentary*. Downers Grove, Illinois: InterVarsity Press, 1993.

Oswalt, John N. *Isaiah*. The NIV Application Commentary. Grand Rapid: Zondervan, 2003.

